

지역 소식



정읍시청 감사과 직원들
복분자 수확 돋기 '구슬땀'

정읍시청 감사과 직원은 지난 23일 일손 부족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복분자 수확을 도왔다.

직원들은 이날 칠보면 류혁용씨 복분자 농장 1000㎡에서 모두 130kg의 복분자를 수확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다.

류씨는 "일손 부족으로 수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일손을 보태줘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초산동주민센터, 무더위 쉼터
15곳 냉방기기 점검

초산동주민센터가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내 15곳 무더위 쉼터(경로당의 어여관과 선릉동 등 냉방기기 등을 점검했다).

이 기간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기 등을 청소하는 등 어르신들이 폐적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읍소방서 시기119 안전센터 등의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도시소비자 초청
영농체험행사 진행

부안군은 친환경 벼농사 손 모내기 등 영농체험행사를 지난 24일 하서면 청호리 석불산 영산랜드 일원에서 도시소비자 15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됐다.

부안군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재배 우수단지 중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도농교류 사업으로 하서마리영농조합법인에서 주거래 소비자를 위해 체험행사로 펼쳐졌다.

이날 영농체험 행사는 손 모내기, 감자캐기, 밀짚공예 체험, 진흙탕 놀이 등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어 석불산 영산랜드 등산로, 삼림욕장 등을 견학하며 부안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마음 속에 가득 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부안=이옥수기자

자전거 타기 안전한 환경 조성

부안군, 사고 대비 모든 군민 대상 1자전거보험 가입

부안군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 사고를 대비해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1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민선 6기 김종규 군수의 공약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되어 왔다.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당해도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하기가 가능하다.

자전거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인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자해 등 범죄 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에 제한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으로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리고 작은 자전거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으신 군민이 꼭 보험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가뭄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총력

양수장비 · 살수차 · 레미콘 등 총 동원 용수 공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뭄 속에 농작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각 실과 소 종합행정 담당 읍·면 일제출장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양수장비와 살수차, 레미콘 등을 총 동원해 용수를 공급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현재 강수량은 194.8mm이고 평년 428mm 대비 45.5%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저수율도 39.1%에 머물러 있어 가뭄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벼 고사 2ha, 논 마름 14ha, 밭 마름 2ha 등 가뭄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군은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농작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예비비와 특교세, 군비 등 28억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중소형 관정 개발과 하상굴착, 저수지 준설, 양수장비 구입 등 가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해리면 사변리 일대의 해안 지역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라성지구 디자인농촌용수개발사업을 조속히 예방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화재위험 사각지대 방지… 고창소방서, 안전마을 행사 열어



앞서 고창소방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후동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육성 및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시행됐다.

특히 고창소방서는 마을 주민을 대

상으로 직접 집을 찾아가 주택의 방방마다 단독경보형감지 보급으로 주택화재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장학숙 입사생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장학생 선정

정읍장학숙(이하 장학숙) 입사생들이 타 기관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대외 수상을 하는 등 준비된 인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장학숙에 따르면 입사생 3명이 (재)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1인 당 총 3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재)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과 산학협동 정신 실현을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재단은 매년 노총 신하 조합원과 근로자의 자녀 등에 대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들 중 성적 우수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평소 우수한 성적과 빛난 행보로 모범이 되어 왔다. 관련해 장학금과 장학증서 수여식은 지난 22일 장학숙 다목적실에서 있었다.

입사생 김기연(한신대학교 4학년)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이어져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의회 송양조 사무국장이 지난 23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송국장은 "지난 17일 땀 결혼식 때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마음 중 일부를 기탁했다"며 "적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시보건소 문상용 소장도 같은 날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김생기)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문 소장은 "인재 양성은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첨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봉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봉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너머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으묘한 맛에 뒤집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송을 맞으며 영글어서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봉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